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
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3. 수요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Zoom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정이 있어 참석
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날 목요일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
길 바랍니다.

4. 주일 애찬 교제 모임

주일 예배후 진행되는 애찬 교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뉴저지 아버지 학교

3월 22일(토), 29일(토), 4월 5일(토), 6일(주일) 저희 교회 건물에서 진행될 예정
입니다.

6.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깊이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지난 주 (3/9)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89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1:6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이우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3장 22-30절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좁은 문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3월 23일	3월 30일
윤원신	정예빈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겨자씨와 누룩

기독교 세계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성공과 성장을 목표로 삼는 가치관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만약 그런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로 드신 것이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겨자씨는 당시 문화 속에서 하찮은 것, 미미한 것, 별 볼일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겨자씨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처럼 위대하고 성장하고 성공한 화려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신 이유는 성장에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 볼일 없어 보인다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하는 대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씨 취급 당하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대 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대적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며 그들의 상식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는 것 또한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된 자들은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겨자씨와 누룩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의 깊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바울입니다. 그의 마지막 삶을 기록한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은 그가 다 무너져 가는 헛간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성도들을 반갑게 맞아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됩니다. 초라하기 그지 없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과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